

강준일 추모음악회

강준일

명상적 보잉 기초 연습법
현을 위한 살풀이

S.M.A. String Chamber Orchestra

해금과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소리그림자 No.2"

해금 정수년, Vn. 심정은, Pf. 김예리

김민기-강준일

아름다운 사람
바다

Sop. 조지영
S.M.A. String Chamber Orchestra

강준일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습곡 中
3.친구야 놀자

S.M.A. String Chamber Orchestra

2018. 3. 24. (토) PM 3:00
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홀

모시는 글

“이제 누가 있어 그 간간한 잔소리와 지칠줄 모르는 가르침으로 우리 음악의 발을 일구겠습니까? 참으로 허전합니다, 선생의 70평생에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2015년 3월20일, 작곡가 이건용 선생은 강준일 선생을 조문하며 이렇게 글을 남겼다. 그의 깊은 탄식은 강준일 선생을 기억하는 많은 동료들, 후학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그의 인간과 업적을 말하기에 뭔가 ‘허전함’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오늘도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강준일 선생이기 때문이다.

그는 쉼 없이 작품을 만들어 온 작곡가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방식으로 선구적 역할을 해 온 지성인이었다. 열정과 체력이 넘치는 음악가이며 잠시도 연필을 놓지 않았다. 그는 어제든 오늘도 언제나 걷고 운동한다, 40년간의 여름음악캠프, 겨울음악캠프에서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떠나시기 직전 까지도 이렇게 하였다, 작곡가에게 필요한 것은 맑은 정신과 강인한 체력이라며!

“준일형... 형이 이런 작업에 나서 줘야해...” 서울고등학교 후배인 김민기는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곤 했었다. 대중음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그러했을 수도 있다.

강준일 선생의 45년 절친이며 서로 존경하는 음악가였던 김무중 교수의 반주자이기도 했던, 두 분은 늘 꿈꾸는 소년들처럼 음악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샘솟듯 아름다운 음율이 차고 넘치던 김광순 작곡가도 늘 함께 하였던 동료였다. 정수년 선생과의 해금이야기를 할 때의 희망찬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음악가로서 교육자로서 선배로서, 형님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슴에 별처럼 새겨진 강준일 선생님, 지금도 여기에 함께 하실 것으로 믿는다.

옛 어른들의 말씀으로 그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세월이 지극히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아느니라”

2017년 3월, 참 보기 드문 사람, 우리의 스승 강준일 선생을 추모하며

마당

강준일기념사업회 [마당]은 숭고한 음악 정신과 한국인의 정서를 찾아 평생을 바친 작곡가 강준일의 음악세계와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거 3주기를 맞아 유족과 제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조직입니다. 앞으로 한국 현대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강준일의 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음악회와 출판, 학술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가하고자 합니다.

故 강준일 (姜駿一) 1944. 12. 5. ~ 2015. 3. 19



서울대학교 문리대 물리학과 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중퇴
88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음악위원 역임
민족음악인협회 이사장 역임
서울음악학회 대표 / 제3세대 작곡 동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전통원 / 서울음대 국악과 출강

作品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마당”, “푸리”, “풍물”
사물놀이와 피아노를 위한 “十干十二支”
사물놀이와 재즈를 위한 “풍물굿”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슬픈노래”, “망각의 강”, “煩惱의 춤”
관현악을 위한 “天年千歲之曲”, “輓歌”, “난파회상”
현악합주를 위한 “옛 이야기”, “현을 위한 시나위”, “닫는소리”
기악독주곡 : 바이올린을 위한 “슬픈노래”, “煩惱의 춤”
“허튼소리”, “짧은가락”
해금과 바이올린을 위한 “소리그림자”, “思月”
실내악곡 : “슬픈 靈魂을 위한 序詩”, “詩情”,
“아우름”, “三行折曲”, “옛소리” 등등
舞踊曲 : “號哭”, “비나리, “新羅의 外出”, “세걸음”,
“흙으로 빛은 사리의 나들이”, “진달래 꽃” 등등.
음악극 : “돌사전”, 극적칸타타 “백범 김구”
총체극 : “백월이 충천하여”

프로그램

강준일	명상적 보잉 기초 연습법	
	현을 위한 살풀이	
		S.M.A. String Chamber Orchestra
	해금과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소리그림자 No.2”	
		해금 정수년
		Vn. 심정은
		Pf. 김예리

김민기-강준일	아름다운 사람	
	바다	
		Sop. 조지영
		S.M.A. String Chamber Orchestra

강준일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습곡 中	
	3.친구야 놀자	
		S.M.A. String Chamber Orchestra

프로그램 소개

명상적 보잉 기초 연습법

명상을 통한 연습은 마음의 눈을 통해 자신의 연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연주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마음처럼 소리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소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밈없는 소리(기초음형)를 알아야만 원하는 소리도 알 수 있을것이다.

요약하면 : 마음이 호흡을 낳고 호흡이 운동을 주재한다. 먼저 마음으로 소리를 떠올리며 활운동을 하면서 호흡이 운동을 주재하여 상상의 소리를 만든다. 명상을 통한 활쓰기의 수련은 이 같이 "마음으로의 연주"를 뜻한다.

2011년 여름 명상적 보잉 기초연습법 중에서...

현을 위한 살풀이

살풀이춤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 춤이다. 살풀이 춤은 삶의 애환과 한을 푸는 춤이다.

“살”이란 “살아있는” 육신과 “삶” 즉 인생을 뜻한다.

몸살이 나는 것은 육신의 고달픔으로 인한 고통이며, 살을 풀어야 원기를 찾는다. 또 삶의 애환을 가져오는 액은 굿 풀이를 해서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야 막을 수 있다.

살풀이 춤은 우주를 상징하는 태극의 몸짓과 영원으로 통하는 우주순환의 시간으로 표현된다. 인간과 우주가 하나를 이룰 때에 무한하고 무상한 춤 이른바 무무무(巫舞無)의 신성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리그림자2

2003년 이후 두 번째 작품 ‘소리그림자2’는 우리 음악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서로 비춰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전통악기 해금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랜 악기로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귀하다. 이에 비하면, 바이올린은 해금의 후손으로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세계화에 도달한 악기라 하겠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두 소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점에 살고 있다. 이 두 소리의 어우러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이루려는 것이 바로 내 소망이다. 과거의 귀중함이 이 시대에서 다시 살아나고, 이 현 시대와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3.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습곡 中 친구야 놀자

2013년 안동 꿈의 오케스트라의 위촉곡으로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3개의 연습곡 중 3번째 곡이다.

‘친구야 놀자’라는 부제가 붙어있으며 한국적인 선율과 리듬을 활용한 경쾌한 곡이다. 2013년 제2회 아시아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S.M.A. Chamber Orchestra에 의해 초연되었으며 현악앙상블과 챔버오케스트라, 국악타악기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되었다.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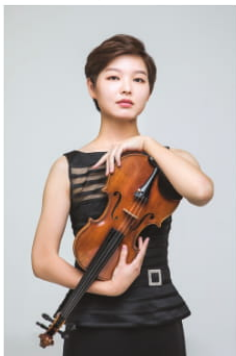
해금 | 정수년 (Jeong Soo Nyun)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KBS 국악관현악단 해금수석 역임
- 1998. KBS 국악대상 관악상 수상
- 2000. 문화관광부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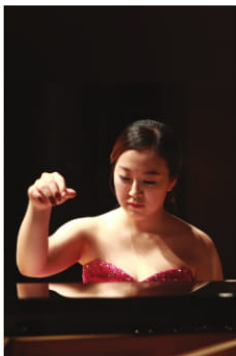
Soprano | 조지영 (Jo Ji Young)

-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소프라노 몽세라카바예로부터 차세대 벨칸토 성악가로 선정 테너 호세 카레라스, 후안디에고와 함께 바르셀로나 리세우 그랜드 오페라하우스 초청 데뷔
- 오스트리아, 스페인, 한국 매니지먼트 소속 가수로 유럽과 한국에서 오페라 오리토리오 가수로 활동 중



Violin | 심정은 (Sim Jeong Eun)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예술전문사 졸업
- 현, Artists Society The Nomads 멤버, Quartet Fractal 리더



Piano | 김예리 (Kim Ye Ri)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김천예술고등학교 강사 역임.
- 2017 Asia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 Solo Award Grand Prize & Concerto Award Bronze Prize.
- TBC 방송콩쿨 1위, 한국피아노재능기부협회콩쿨 1위, 삼익자일러 피아노콩쿨 3위.

S.M.A 챔버오케스트라

리더 : 심정은 바이올린 : 구자민 김다혜 김단영 김리나 김민규 김예람 박혁진 백혜림 이재홍 타악 : 김정섭
비올라 : 성신애 송예슬 오승연 정혜선 첼로 : 김옥정 김지우 윤보람 이서연 더블베이스 : 박연희

[마당] 강준일기념사업회
kangjoonil.com

음향감독

장경철

Staff

김정근

김준호

유동민

장윤